

“하루만에 연봉 증발” 증시 폭락에 개미들 패닉

코스피 2500선 봉괴하자…온라인에 개미 성토

“연봉벌어 좋던 때 엊그제” · “-80% 손실”

“하루 만에 눈 앞에서 연봉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5%대입니다. 바이오 종목 중 손실이 80%대까지 난 것도 있나니까요”

14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증시 하락에 투자 손실을 봤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성토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1.26% 하락한 2472.96에 출발하면서 2400선이 붕괴됐다. 전일 연중 최저점을 깊이 치운지 하루 만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코스피가 연이은 하락세를 이어가자 고통을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난 주식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물어 주식투자 유튜브와 기사를 쉬지 않고 본다는 투자자부터 온

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하루에도 수십번 들락날락 거린다는 투자자들까지 성토의 글이 전일부터 하나둘 올라오고 있다.

2020년 초 동학개미운동이 진행된 한참 후로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나, 뒤늦게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인 경우,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투자했다면 이번 하락장에 더욱 손실을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본 결과 이번 코스피 하락세에 손실을 입었다며 낙담하는 글이 특히 늘었다. “수천 만원 떨어지니 연봉이 사라졌다. 한 번에 연봉 벌었다고 좋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사회 생활하며 번 돈 다 주식에 넣었는데 죽을 맛”, “5%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몇 개 인지 셀 수 없을 정도” 등이 눈에

띄웠다.

장 변동성이 커지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 갑질질하는 분위기다. 지금이라도 손해 본 종목들을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할지 등 고민 상담하는 글도 상당했다.

직장인 김모(39세)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평가 수익률 25.03%로 3200만원의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김씨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주식투자를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투자금을 크게 확대한 부분도 손실을 기운 것 같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장이 안 좋고 흔들릴 때 주식 투자 비중을 줄였어야 했는데 그게 맘처럼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절매’ 하는 게 나을지, ‘怙타기’를 하는 게 좋을지, 다른 사람들 말처럼 계좌를 닫고 안보고 기다리는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다”며 “계속 투자자 유튜브

랑 기사를 보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 조조할 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푸념과 우려와 함께 위로의 말도 오갔다. 게시판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유있게 보자”,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는 법”,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부터 “주식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큰 장인데 이 정도로 절망할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놀랄 일이 아니니 마음 단단히 먹자”는 말까지 다양했다.

그 중에는 “여기에 수익이 난 사람도 있겠죠?”란 글도 올라왔다. 그러자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말도 못 낸다”, “하락장이라고 모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다”, “맡은 안해도 버는 사람은 별지도” 등의 글도 눈에 띄었다. 한 투자는 “저 500만 원 이익이에요. 물론 2000만원 이익이 5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비밀”이라고 글을 올렸다.

/뉴스

내달부터 910만 가구 전기료 2천원↑

한전, 7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혜택 폐지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약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요금마저 오르면 냉방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월 200㎾로트시(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준 월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혜택 제도 개선에 따른 이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불린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기준 혜택 대상인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가구인 9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월 최대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아예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 등 가구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2000원 더 오르는 가구 수는 910만 가구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 같은 특례 할인 일몰에 따라 재무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월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 51억9천만 달러

전년比 16.4%↑ 역대 최대…유럽 35.8% · 미국 17.2%↑

올해 5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2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신선, 가공, 수산식품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5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1억 85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하면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건강기능식과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쌀 가공식품(7590만 달러 · 15.6%), 고추장(2290만 달러 · 3.3%), 유자(2420만 달러 · 13.8%)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aT는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인한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국적선사인 HMM과 협업해 수출 전용 선복 노선을 기준의 미 서부, 호주에서 미 동부, 유럽, 동남아까지 신규로 확대했다. 또 대한항공과 협업해 항공기의 본격 수출 시즌인 12~4월에 전용기 운행도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5월 말 기준 유럽(EU·영국) 수출액이 전년보다 35.8% 늘어난 3억 6490만 달러를 달성했다. 미국(7억 9290만 달러)은 전년 대비 17.2%, 중국(8억 8560만 달러) 23.7%, 아세안(10억 6380만 달러) 15.1%, 일본(9억 9250만 달러) 9.1%가 증가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아세안의 경우 닭고기 과실류, 김 호초에 헌인어 신선, 수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음료,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도 늘었다.

일본에서는 김치, 파프리카 등 신선 품목과 함께 식초, 고추장, 굽, 전복 등도 인기를 끌었다.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 통관 지연, 이동 통제 등으로 신선 식품과 가공식품은 감소했으나 수산물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더불어 중국 봉쇄 조치로 컨테이너 확보, 항만 적체가 개선되면서 김치, 인삼, 라면, 김 등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T는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북방 1위 시장인 대(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자 2위 시장인 몽골에 공을 들였다.

특히 ‘파일럿 요원’을 파견해 신규 바이어 발굴, 홍보 마케팅 등 시장 개척에 집중한 결과 대몽골 수출액 또한 전년보다 43.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자청, 입주기업과 소통 강화

입주(예정)기업 간담회…지원정책 안내 · 애로사항 청취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함께 지난 5월 광주경자청(이하 광주경자청)은 14일 광주경자청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기술진흥원(KIAT),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입주(예정)기업 10개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경제자유구역 소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및 적용사례 설명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안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아 7세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은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김희재 의원은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광주경자청과 함께 지난 5월 광주경자청 비즈니스 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예정)기업과 체결한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에 포함돼 금융지원이 가능해진 협약 내용을 설명해 참여기업의 호응을 얻었다.

기업 대표들은 입주기업 대상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광주시와 경자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형안 기자



2분기 실적 하락 전망되는 라면업계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밀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펌유수출을 재개한 뒤에 추가적인 규제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라면업계의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라면 코너에 진열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

추경호 “외환·금융시장,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물가 안정 최우선…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수단 총동원”

“화물연대 파업 실물경제 영향 파악…물류피해 최소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물가 불안과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등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국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엄중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비상해지고 있다”며 “전세계가 물가급등을 경험 중이고, 미국 등의 고강도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미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0.75%포인트(p)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은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면밀히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에 제일 중요한 부문인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종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달라”고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며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과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이 산업·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며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과 비상수송대책 등으로 물류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살 이하 유치원생들 ‘부모찬스’로 571억원어치 집 샀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

미성년자인 7세 이하 어린이들이 최근 3년 간 주택을 구매한 금액이 5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아

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아 7세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은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김희재 의원은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